

언어과학연구 61 (2012)

##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의 인지언어학적 고찰

엄철호(부산가톨릭대학교)\*·권연진\*\*(부산대학교)\*\*

Youm, Cheol Ho-Kwon, Yeon-Jin. 2012. A Cognitive Linguistic Study on the English Preposition *on* and the Italian Preposition *su*.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61, 117-142. This paper compares the English preposition “on” with the Italian preposition “su”,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and shows that ‘the contact of a trajector with a landmark’ is their common prototypical meaning. It is altered into three kinds of meanings: contact state alteration, stative state alteration and visibility alteration. These alterations belong to prototypical meaning, because their basic meaning is ‘contact’ in a broad meaning. The first two are common in both prepositions “on” and “su”. However, the last one is found only in English. Both spacial prepositions are commonly used as a source concept to conceptualize several abstract target concepts such as time, ground and reason of action, theme of writing or lecture, topic of book or paper, aggravation and addition. The spacial meanings of two prepositions are metaphorically extended in different ways as well. Nevertheless, their difference is not so significant. Finally, this paper shows that abstract extended meanings of the Italian preposition are very scant, compared to English. According to Talmy(2000), it depends on the cognitive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language speaker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전치사(preposition), 다의성(polysemy),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탄도체(trajector), 지표(landmark),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

## 1. 서론

아무리 가까운 언어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용례를 1:1로 대응시켜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을까?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은 무엇일까? Talmy(2000)와 Frenda(2005a, b)같은 인지언어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언어를 비교할 때 인지적 의미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경험, 곧 인지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모든 언어의 화자들은 공통된 신체적 경험, 공통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언어마다 다소 다른 인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인지 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다(Kövecses 2005).

이런 인지언어학적 관점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된 연구는 Lakoff & Johnson(1980/2003)과 Johnson(1987)이다. 그들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은 신체적 인지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경험하는 공간적, 물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진다. 시간, 감정과 같이 공간과 관련 없는 비공간적, 비물리적 체험들은 공간적, 물리적 체험의 투사를 통해 인지되고 표현된다. 그런데 공간적, 물리적 체험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이다. 이 때문에 인지언어학자들은 전치사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 왔는데, 대개 전치사가 가지는 다의성(polysemy)에 그 연구 초점을 맞추어 왔다. 다의성은 전치사뿐만 아니라 언어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언어적 특징이기 때문이다(Evans & Green 2006: 371-375).

인지언어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전통적인 형식주의 의미론적 관점에서 전치사 on의 의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근원적 의미를 찾고자 했으며, 많은 학자들은 ‘접촉’(contact)을 가장 근원적인 의미라고 여겨왔다(Cooper 1968; Leech 1969). 그러나 형식주의 의미론으로는 전치사 on이 보여주는 다의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Brugman & Lakoff(1988), Johnson(1987, 1991), Lakoff(1987, 1990), Lakoff & Johnson(1980)은 영상도식과 의미적 연결망을

이용해서 on이 가지는 다의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Beitel, Gibbs & Sanders(1997)는 전치사 on의 의미에는 지지(support), 압력(pressure), 제약(constraint), 덮기(covering), 가시성(visibility)이라는 다섯 개의 도식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어느 요소들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37개의 구체적, 추상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영어 전치사 on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지만, 이탈리아 전치사 su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on과 su의 다의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Taylor(1988), Bowerman(1996a, b), Frenda(2005a, b)가 있는데, 이 연구들 역시 공간 전치사 전체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on과 su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on과 su가 지니는 다의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의 의미확장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전치사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원형의미를 살펴보고, 그 원형의미가 접촉상태, 정지상태, 가시성과 관련되어 어떻게 정교화 되는지, 또 은유적으로 어떻게 의미확장이 되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 2. on과 su의 원형의미와 변이형

Lakoff(1987), Brugman & Lakoff(1988)은 영상도식을 이용해서 전치사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원형의미와 변이된 의미, 그리고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들을 분석하는데, 이 의미들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함으로써 다의성을 드러내는지를 밝힌다. 여기서 영상도식은 하나의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경이란 지각적으로 현저한 것을 나타내고, 배경은 그 전경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치사란 이 전경과 배경이 가지는 공간적 관계를 언어로 실현한 것이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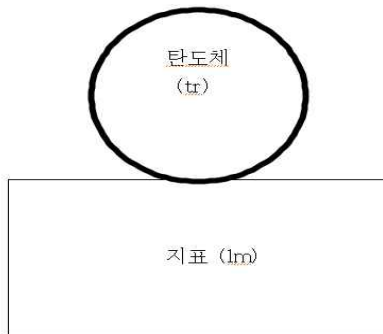
- 
- 1)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어떤 것이 전경이고 무엇이 배경인지를 즉시 구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책상 위에 꽃이 놓여 있는 장면을 지각한다고 할 때 꽃이 전경이며, 책상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꽃 밑에 책상이 있다는 식으로 인지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Lakoff (1987)과 Johnson(1987)은 영상도식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다루면서 Langacker(1987)의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는데, 한 영상도식 안에서 전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가 탄도체가 되고, 배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가 지표가 된다. 전치사의 영상도식에서 탄도체는 경로(path)에 따라 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데, 지표는 탄도체 움직임의 방향이자 정지해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참조점 역할을 한다. 전치사와 관련된 영상도식은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 곧 탄도체가 지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표현한 것이다.

대개 공간을 의미하는 전치사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도식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영상도식의 공통되는 부분을 기본의미, 혹은 원형의미라고 부른다(이기동 1980: 200). 그리고 이 원형의미가 제공하는 도식의 특정 부분을 상술하면서도, 도식의 일반적 형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의미를 정교화, 혹은 변이형이라 부른다(Ungerer & Schmid 2006/2010: 241). 그러면 on과 su의 원형의미를 살펴보고 그 변이형에 대해 살펴보자.

## 2.1 on의 원형의미

전치사 on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탄도체가 어떤 지표 위에 놓여 있는 영상도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림 1> on의 영상도식

이 영상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on은 우선 탄도체와 지표가 상하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 (1) a. There is a cup on the table.
- b. A cat is on the cupboard.

(1a)에서 ‘컵’(a cup)과 (1b)에서 ‘고양이’(a cat)는 탄도체에 해당하고 ‘탁자’(the table)와 ‘찬장’(the cupboard)은 지표가 된다. 이창희(2001: 283-284)가 지적하듯이, on은 (1a, b)에서 볼 수 있는 상하접촉관계 표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인지적 경제성(cognitive economy)(Rosch 1978) 측면에서 상하접촉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에, 이것을 on의 원형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형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Tyler & Evans(2003: 45- 50)는 공간 전치사의 원형의미를 결정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원형의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의미여야 하며, 둘째, 의미 연결망에 있어서 다른 개별 의미에 가장 빈번하게 관여하는 의미여야 한다. 셋째, 원형의미는 그 전치사가 합성어의 접두사로 쓰일 때와 구동사에 쓰일 때에도 나타나야 한다. 넷째, 원형의미는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적 차원을 적절하게 분할해 주는 대조 집합(contrast set)을 형성하는데 자연스러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미 확장 예측이 매우 용이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하접촉관계를 on의 원형의미로 설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상하접촉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원형의미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 (2) a. The fly is on the ceiling.
- b. The handle on the door was broken.

(2a)는 탄도체 ‘파리’(fly)가 지표인 ‘천장’(ceiling) 밑에 위치하고 있고, (2b)에서 탄도체 ‘손잡이’(handle)는 ‘문’(door) 측면에 접촉되어 있는데, 이창희(2001: 284)는 이것을 위치와 관련된 변이형이라고 본다. 즉, 상하접촉관계의 변이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형이 원형의미에 해당하는 영상도식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2a, b)는 상하접촉이라는 영상도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을 정도로 그 기본적인 속성을 깨뜨린다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하접촉을 on의 원형의미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확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3) On his arrival, I will greet him politely.

여기서 탄도체는 ‘인사’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도착’이라는 사건인데, 전치사 on은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간적인 접촉은 대개 시간의 흐름이라는 좌표 위에서 좌우로 접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상하접촉이 원형의미라고 한다면, 이 원형의미에서 좌우접촉과 관련된 은유적 의미확장을 결코 예측해 내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원형의미를 ‘접촉’으로 볼 때 모두 해결된다. 즉, ‘접촉’을 원형의미로 보게 되면 (1a, b)와 (2a, b)는 모두 원형의미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3)의 은유적 의미확장 예측도 용이해 진다.

원형의미를 식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이기동(1980: 200)은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한 어휘의 다양한 의미들 모두에 가장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기동(1980: 201-203)은 이를 토대로 전치사 on의 기본의미가 접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기동(1980: 201)에 따르면 (1a, b)와 (2a, b)는 모두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하나 같이 ‘접촉’이라는 원형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2.2 su의 원형의미

Trifone & Palermo(2000: 161)는 공간에서의 상하접촉관계(posizione soprastante)를 su의 기본적인 의미로 여기며, 이탈리아어 사전들(한국외국어대 학술판부 1992; Ragazzini & Biagi 1997; Zingarelli 2001; Patota 2008)은 su의 일차적 의미로 공간에서의 상하접촉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사전인 Ragazzini & Biagi(1997)는 전치사 su가 일차적으로 영어 on, upon, on top of, onto, up과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Frenda(2005a, b)는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영어 전치사 above, on, onto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견해들을 본다면, 이탈리아어 사전들은 대개 (4)와 같은 상하접촉관계를 전치사 su의 원형의미로 여

긴다고 할 수 있다.

(4) C'è una coppa sulla<sup>2)</sup> tavola.

There is a cup on the table.

(4)에서 탄도체 ‘컵’(una coppa)은 지표 ‘책상’(la tavola) 위에 정적인 상태로 놓여 상하로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역전된 상하접촉이나 좌우접촉의 형태를 표현하는데도 사용된다.

(5) a. C'è una mosca sul soffitto.

There is a fly on the ceiling.

b. Il manico sulla porta era lotta.

The handle on the door was broken.

(5a)에서 탄도체 ‘모기’(una mosca)는 지표 ‘천정’(il soffitto) 아래에 접촉해 정지해 있는 상태인 상하역전관계를 보이고 있고, (5b)에서 탄도체 ‘손잡이’(il manico)는 ‘문’(la porta) 옆에 접촉해 정지해 있는 상태인 좌우접촉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탈리아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상하접촉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원형의미가 (4)와 (5a, b)의 모든 관계들에 관여하는 의미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탈리아어에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상하접촉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은유적 의미확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6) Siamo arrivati su due piedi.

are arrived on two steps

We arrived at once.

(6)은 ‘도착’이라는 사건이 ‘두 걸음’이라는 사건에 접촉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영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좌표 위에 두 사건이 좌우로 나란히

---

2) 이탈리아어 전치사는 정관사 앞에 나올 때 정관사와 결합하여 sul / sullo (su + 정관사, m, sg), sulla (su + 정관사, f, sg), sui / sugli (su + 정관사, m, pl), sulle (su + 정관사, f, pl)의 형태를 취한다.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은유화되어 있다.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도 그 원형의미를 ‘접촉’이라고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곧, (4)와 (5a, b)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탄도체와 지표가 좌우로 은유화되든, 상하로 은유화되든 상관없이 모든 은유적 확장을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영어와 이탈리아어는 공통적으로 ‘접촉’을 원형의미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 변이형

본 절에서는 전치사 *on*과 *su*의 접촉 양상을 여러 개의 변이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이형이란 원형의미가 지닌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한 한 속성들을 부각시키거나 변이시키는 것인데, *on*의 변이형에는 접촉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 가시성 변이가 있고, *su*의 변이형에는 접촉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가 있다. 이러한 변이형 역시 탄도체와 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원형의미라 할 수 있겠다.

#### 2.3.1 접촉상태 변이

영어 전치사 *on*은 접촉이라는 의미를 변이시킴으로써 하나의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그 예는 (7)과 같다.

(7) a. There is a gas station on the highway.

b. There is a garden on the lake.

(7a)는 탄도체 ‘주유소’(a gas station)는 지표 ‘고속도로’(highway)와 서로 완전히 접촉한 상태라기보다 약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접촉한 상태이다. 이것은 (7b)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탄도체 ‘정원’(a garden)은 지표 ‘호수’(the lake)에 근접해서 접촉해 있는 상태이다.

이창희(2001: 286)는 근접접촉(neighboring contact) 형태를 (2b)에 나오는 좌우접촉 형태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다. 곧, (2b)에서는 탄도체 ‘손잡이’가 높이가 있는 지표 ‘문’에 좌우로 접촉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7a, b)의 탄도체 ‘주유소’와 ‘정원’은 높이가 없는 지표 ‘고속도로’와



‘호수’에 좌우로 접촉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창희 (2001: 285-290)는 이 근접접촉을 시간적 확장, 추상적 확장과 같은 부류의 의미확장으로 본다. 본 논문은 이창희와 달리, 근접접촉 역시 넓은 의미에서 접촉을 의미하므로 on의 원형의미에 해당한다고 본다(김일곤 2001; 이기동 2002; 정희자 2007).

영어에서는 이 평면적인 좌우 근접접촉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전치사가 있는데 바로 near이다. 그렇다면 on과 near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치사 near는 on이 의미하는 근접성보다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된다. 곧 (7a)는 주유소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접촉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on을 near로 바꾸어 There is a gas station near the highway라고 표현하면 주유소는 고속도로변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가까운 어느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탈리아어에서는 어떻게? (7a, b)를 이탈리아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8) a. C'è una stazione di servizio sull'autostrada.  
There is a station of service on the highway.
- b. C'è un giardino sul lago.  
There is a garden on the lake.

(8a)의 ‘주유소’(una stazione di servizio)와 (8b)의 ‘정원’(un giardino)은 각각 탄도체 ‘고속도로’(l'autostrada)와 ‘호수’(il lago)에 평면적인 측면에서 좌우 근접접촉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도 영어 on과 마찬가지로 원형의미인 ‘접촉’의 접촉상태와 관련된 변이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어 near와 on과 같은 관계가 이탈리아어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9) C'è una stazione di servizio vicino all'autostrada.  
There is a gas station near the highway.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어 역시 su 대신에 vicino a라는 표현을 사용해 탄도체 ‘주유소’가 지표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가까운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

을 표현할 수 있다.

### 2.3.2 정지상태 변이

on의 원형의미를 탄도체가 지표에 접촉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탄도체가 지표에 정지된 상태로 접촉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즉, 정지상태는 on의 원형의미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on의 의미에는 이 정지된 상태와 관련된 속성을 변이시킨 변이형이 발견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 (10)a. The man jumped on the train.  
b. He has put the apple on the table.

여기서 ‘뛰어오르다’(jump)와 ‘놓다’(put)는 각각 탄도체 ‘사람’(the man)과 ‘사과’(the apple)가 지표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요약주사<sup>3)</sup>(summary scanning)한다. 즉, 처음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 접촉하게 된 사건 전체를 전치사를 이용해 한꺼번에 표현한다는 것이다. (10a, b)에서 on은 ‘뛰어오르다’, ‘놓다’라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접촉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때 on의 원형의미 가운데 정지된 상태라는 속성을 변이시키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종의 변이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접촉’이라는 의미를 유지하기 때문에 원형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다(정희자 2007). Langacker(1991: 23)는 이것을 복합정적관계(complex stative relation)라 부른다. 왜냐하면 단순정적관계(simple stative relation)<sup>4)</sup>를 나타내지 않고 탄도체가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이형은 이탈리아어 su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Langacker(1987: 144-146)는 인간 인지 양상을 요약주사(summary scanning)와 순차주사(sequential scanning)로 구분한다. 요약주사란 모든 양상이 관찰자에게 하나의 전체로 수집되는 것인데, 대개 명사적 윤곽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순차주사란 사건의 전개 과정, 변화를 수집하고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대개 순차주사는 한정동사로 표현된다(Ungerer & Schmid 2006/2010: 274-276).

4) 김일곤(2001: 49)에 나오는 용어를 가져온 것으로 단순정적관계란 공간에서 탄도체가 지표 위에 접촉해서 이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11) a. L'uomo ha saltato sul treno.  
 The man has jumped on the train.  
 b. Ha messo la mela sul tavolo.  
 has put the apple on the table  
 He has put the apple on the table.

여기서 전치사 su는 (11a)의 ‘사람’(l'uomo)과 (11b)의 ‘사과’(la mela)라는 탄도체가 각각 지표 ‘기차’(il treno)와 ‘책상’(il tavolo)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직접 접촉한 상태를 갖게 된 전체 이동경로를 요약주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는 정지상태와 관련해서도 영어 전치사 on과 동일한 변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3 가시성 변이

Wierzbicka(1994), Beitel, Gibbs & Sanders(1997: 256), Goddard(2002: 288-290)는 탄도체가 지표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탄도체의 가시성 역시 on의 원형의미에 속한 하나의 중요한 속성으로 본다. 그런데 (12)와 같이 가시성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변이형이 있다.

- (12) The fish are on the surface.

(12)의 예문에서 물고기는 실제로 물 속에 들어 있는데도, 전치사 on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물 밖에서 물고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Beitel, Gibbs & Sanders(1997)에 따르면 on이 사용된 대부분의 예에서 이 가시성이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러나 (12)에서 전치사 on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가시성’ 때문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 표면에 근접접촉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시성은 근접접촉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곧, 물고기가 물 밖에서 보이는 것은 물고기가 물표면 근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시성 변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접촉’이라는 원형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시성이라는 특성은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의 원형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속성임이 분명하다. 탄도체가 지표 위에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시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어에는 (12)와 같은 가시성 변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

- (13) I pesci sono alla superficie del mare.  
The fish are at the surface of the sea.

이탈리아어에서는 ‘~의 표면에’(alla superficie di)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탄도체인 ‘물고기들’(i pesci)이 지표인 ‘바다’(il mare) 표면 가까이 있음을 표현한다. 이탈리아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가시성 변이를 su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인도유럽어인 불어, 독일어도 마찬가지인데, (14a, b)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14) a. Les poissons sont à la surface de la mer. (불어)  
The fish are at the surface of the sea.  
b. Es gibt die Fischen an der Oberflächen. (독일어)  
It gives the fish at the surface.  
There are the fish on the surface.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어와 같은 어족에 속하는 불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역시도 이탈리아어와 마찬가지로 ‘~의 표면에’(à la surface de; an der Oberflächen)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탄도체인 ‘물고기들’이 ‘바다’ 표면 가까이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시성 변이는 영어 화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보인다.

### 3. on과 su의 은유적 확장

앞 장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의 원형의미와 변이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on과 su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가시성 변이를 제외하고는 ‘접촉’이라는 원형의미에 있어서 1:1로 대응할 만

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on과 su의 공통된 의미적 속성은 두 언어가 같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on과 su가 추상적인 지표나 탄도체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것이다. Ungerer & Schmid(2006/2010: 244)는 이것을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 공간 영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추상적인 영역의 관계를 구조화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두 전치사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전치사가 서로 유사한 은유적 확장을 보이면서도,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인데, 특히 이탈리아어의 경우 영어에 비해 추상적인 의미로의 은유적 확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Talmy(2000: 222)의 동사 틀부여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 3.1 on과 su의 은유적 공통점

on과 su는 시간과 관련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행위의 근거와 토대, 어떤 주제나 소재를 추상적 지표로 삼는 경우, 또 첨가와 가중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3.1.1 시간적 의미

시간은 비록 인간의 기본적인 체험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은유적 과정 없이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즉, 시간은 공간적 경험을 토대로 한 존재론적 은유와 구조적 은유를 통해서 개념화된다. 이에 본 논문은 시간적 의미를 은유적 의미확장의 한 형태에 포함시켜 다룬다. 특히 전치사 on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는데, 시간이 공간적 지표로 은유화되기 때문이다.

- (15) a. We arrived in New York on Monday.
- b. He was born on Dec. 17, 1990.
- c.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night of the 20th.

(15)에서 on의 의미는 탄도체 ‘사건’과 지표 ‘시간’이 서로 상하로 접촉되어 있는 영상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5a)에서 탄도체는 ‘도착’이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월요일’이라는 시간인데 사건이 시간이라는 지표 위에 정지해서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15b)에서는 ‘탄생 사건’이 탄도체이고, ‘1990년 12월 17일’이 지표가 되며, (15c)에서는 ‘벌어진 사건’이 탄도체가 되고 ‘20일 밤’이 지표가 된다.

이런 시간적 의미확장은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에서도 발견되는데, (16)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 (16) a. La festa terminò sul far del mattino.  
 The feast finished on the doing of the daybreak  
 The feast finished at daybreak.
- b. Ritornarono sulla mezzanotte.  
 returned on the midnight  
 They returned at midnight.
- c. abbiamo camminato sulle due ore.  
 have gone for a walk on the two hours  
 We have gone for a walk for two hours.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on과 마찬가지로 탄도체와 지표가 맞닿아 있는 일정한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16a)에서 탄도체는 ‘축제’(la festa)이고, 지표는 ‘새벽녘’(il far del mattino)이다. (16b)에서 탄도체는 ‘그들이 돌아옴’이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자정’(mezzanotte)이며, (16c)에서는 ‘산보’가 탄도체이고, ‘두 시간’(due ore)이 지표가 된다. 그런데 Trifone & Palermo(2000: 162)에 따르면 이 경우 su는 ‘대략, 즈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3)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시간과 관련해서 전치사 on은 두 사건이 시간적 전후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17) On hearing about our disease, he consoled us for it.

여기서 탄도체 ‘위안’이라는 사건은 지표 ‘들음’이라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직접 맞닿아 있어서 시간적인 ‘직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두 사건은 시

간의 흐름이라는 좌표에 있어 좌우로 직접 접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예는 그다지 많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한 표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 (18) Non si deve bere vino sul latte.  
 not you must drink wine on the milk.  
 You shouldn't drink wine after milk.

(18)은 우유를 마신 뒤 즉시 와인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탈리아어 문장이다. 여기서 전치사 su는 탄도체 ‘포도주를 마시다’라는 사건과 지표인 ‘우유(를 마시다)’라는 사건의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즉, su는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근접접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비교를 통해 공간 관계를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공통적으로 은유적 의미확장을 통해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1.2 공통된 은유적 확장

전치사 on은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와 같은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거나, 첨가와 가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들은 지표가 탄도체를 떠받치고 있는 상하접촉이라는 영상도식이 은유적으로 추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일곤 2001: 59-63; 이창희 2001: 290- 293).

- (19) a. Please act on principle. (근거)  
 b. He is writing a new book on the new millennium. (주제)  
 c. Failure on failure discouraged him. (첨가/가중)

(19a)에서 탄도체는 ‘행위’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원칙’(principle)이다. 이 때 행위라는 사건은 원칙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원칙은 행위를 지탱해준다. (19b)에서 탄도체는 ‘새 책’(a new book)이고 지표는 ‘새 천년’(the new millennium)이다. 여기서 새 책은 새 천년이라는 주제에 관한 것으

로 책이 새 천년이라는 주제와 접촉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19c)에서 탄도체는 ‘어떤 실패’(failure)이고 지표는 ‘또 다른 실패’(failure)이다. 여기서 하나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 위에 얹어져서 그 의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영어 전치사 *on*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 첨가와 가중을 표현한다.

- (20) a. *La tua opinione si è fondato su questo principio.* (근거)  
           the your opinion is based on this principle  
           Your opinion is based on this principle.
- b. *Parliamo su questo tema.* (주제)  
           Let's talk on this theme  
           Let's talk about this theme.
- c. *Ho commesso errori su errori.* (첨가/가중)  
           have made errors on errors  
           I made a mistake after mistake.

(20a)에서 탄도체는 ‘너의 의견’(la tua opinione)이고 지표는 ‘이 원칙’(questo principio)인데, *su*는 그 의견이 이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 의견이 놓여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0b)에서 탄도체는 ‘대화’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이 주제’(questo tema)이다. 대화라는 사건은 이 주제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c)에서 지표는 ‘실수들’(errori)이고 탄도체 역시 ‘실수들’(errori)이다. 여기서 전치사 *su*는 실수 위에 또 다른 실수들이 계속 가중되어 얹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지금까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는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 첨가와 가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on*과 *su*의 은유적 차이점

시간이나 몇몇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는 경우 *on*과 *su*는 은유적인 확장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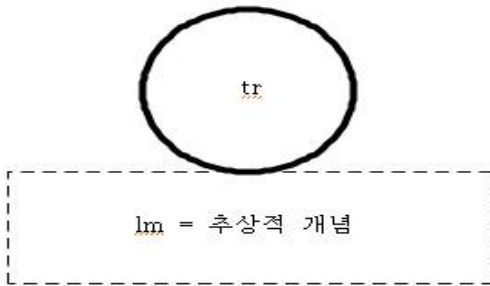
어서 서로 동일하였다. 하지만 다른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on과 su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 전치사 on은 폭넓게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이탈리아어는 전치사 su는 은유적 확장이 빈약하다. 이 장에서는 이 점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 3.2.1 상이한 은유적 확장

on과 su는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on과 su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체가 추상명사인 지표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on과 su는 서로 상이함을 보이기도 한다.

- (21)a. He is here in Seoul on business.  
 b. She is going on an errand for her mother.  
 c. The laborers are on strike.  
 d. The watchman was on duty that night.  
 e. The apartment house is on sale  
 f. The jewels are on exhibition.  
 g. She is on vacation.

위의 예는 구체적인 탄도체가 지표가 되는 추상명사와 지속적인 접촉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1a)는 탄도체 ‘그’(he)가 ‘사업’(business)이라는 목적으로 서울에 있음을, (21b)는 탄도체 ‘그녀’(she)가 ‘심부름’(errand)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1c)는 탄도체 ‘일꾼들’(the laborers)이 ‘파업’(strike)이라는 지속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21d)는 탄도체 ‘경비원’(the watchman)이 ‘당번으로서의 임무’(a duty)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21e)는 탄도체 ‘아파트 집’(the apartment house)이 ‘판매’(sale)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21f)는 탄도체 ‘보석들’(the jewels)이 ‘전시’(exhibition) 중임을 나타낸다. (21g)는 탄도체 ‘그녀’(she)가 ‘휴가’(vacation) 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영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확장된 on의 영상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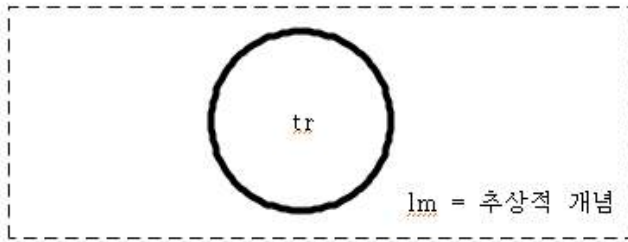
이 영상도식에서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표들은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탄도체가 그 위에 놓일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 은유화되고 있는데, 이는 Lakoff & Johnson(1987: 25-32)의 존재론적 은유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추상적인 대상이 하나의 사물로 은유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탄도체는 추상적인 대상 위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어에서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는 경우는 어떨까? (22)는 (21)에서 사용된 영어 전치사 ‘on + 추상명사’ 구조를 이탈리아어 ‘전치사 + 추상명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 (22) a. on business = sugli affari
- b. on an errand = su incarico
- c. on strike = in sciopero
- d. on duty = in servizio
- e. on sale = in vendita
- f. on exhibition = in mostra
- g. on vacation = in vacanza

위에서 알 수 있듯이, (22a, b)의 이탈리아어 ‘사업’(affari), ‘심부름’(incarico)의 경우는 영어의 ‘사업’(business), ‘심부름’(errand)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su를 사용해 탄도체가 지표와 상하로 접촉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하지만 (22c-g)의 경우 같이 지표 ‘파업’(sciopero), ‘임무’(servizio), ‘판매’(vendita), ‘전

시'(mostra), '휴가'(vacanza)와 같은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와 달리 전치사 in을 이용해 추상명사를 하나의 방, 장소로 은유화하고 있다. 즉, 탄도체가 지표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Lakoff & Johnson(1987: 29-32)의 존재론적 은유 가운데 그릇 은유(container metaphor)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확장된 su의 영상도식

<그림 2>와 <그림 3>의 영상도식을 비교한다면 이탈리아어와 영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태를 은유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서 Kövecses(2005)가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성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개념적 은유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lgeo(2006: 172)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 중에서도 전치사 in과 on의 경우는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Algeo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거주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치사 in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on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23)a. I live in Broad Street.

b. I live on Broad Street.

여기서 (23a)는 영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 (23b)는 미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가 영어 전치사 on의 자리에 in을 사용한다는 것이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영어 화자와 이탈리아어 화자의 문화적 차이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영어 전치사 on의 자리에 이탈리아어 전치사 in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두 언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겠다.

### 3.2.2 su의 빈약한 은유적 확장

영어에서는 앞의 예들 이외에도 영향력의 행사(24a, b), 인간 혹은 국제 관계(24c)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on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김일곤 2001: 59-63).

- (24) a. Hard work began to tell on his health.
- b. The feeling stole in on me.
- c. Israel is not on good terms with palestine.

그러나 이탈리아어 su의 경우에는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영어의 on만큼 많은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탈리아어는 대부분의 경우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가 동사와 전치사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들을 대개 하나의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어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5) a. to hand on = trasmettere
- b. to check on = controllare
- c. to come on = cominciare, accendersi
- d. to bring on = provocare
- e. to build on = aggiungere, sfruttare
- f. to call on = invitare
- g. to carry on = continuare
- h. to catch on = attecchire

이러한 특징을 Talmy(2000: 222)가 말하는 동사 틀부여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lmy(2000: 222)는 탄도체가 이동하는 경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로망스계어, 썸족어, 일본어, 타밀어, 폴리네시아어 등을 동사 틀부여 언어라고 부르고, 로망스어를 제외한 인도유럽어, 피노-우가틱어, 중국어 등과 같이 경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전치사나 독일어의 경우와 같은 분리전철을 이용하는 언어를 위성어 틀부여 언어라고 부른다.

(26)a.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b. La botella entró flotando a la cueva. (스페인어)  
the bottle entererd(MOVED-in) floating to the cave.

(27)a. He flew across the Channel.

b. He traversa la manche en avion. (불어)  
He traversed(MOVED-acorss) the Channel by airplain.

(26a)와 (27a)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이동 경로를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지만, 스페인어 (26b)와 불어 (27b)는 이동 경로를 동사의 의미에 포함시켜 표현하고 있다(Talmy 2000: 227). 영어와 같은 위성어 틀부여 언어는 (27a)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이라는 의미와 이동 방식을 동사로, 이동하는 경로를 전치사로 표현한다. 반면에 동사 틀부여 언어들은 (27b)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이동이라는 의미와 경로를 동사로, 이동하는 방식을 부사구나 절로 표현한다. 이러한 Talmy(2000: 222)의 분류에 따르면 이탈리아어는 불어, 스페인어와 같은 로망스계통어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를 이용하여 탄도체의 경로를 기술하므로 동사 틀부여 언어에 속한다. 여기서 영어와 이탈리아어 화자가 기본적으로 사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는 영어 전치사 *in*에 비해 그 사용 빈도수가 적고, 또 전치사의 은유적 의미확장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영어에서도 동사를 이용하여 탄도체의 경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동사는 대개 이탈리아어의 조상어라 할 수 있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25)의 ‘동사 + 전치사’ 식의 표현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해당 이탈리아어와 라틴어 단어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 (28)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 동사 비교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
transmettere	transmittere	to transmit
controllare	프랑스어에서 유래	to control
cominciare	comiziare	to commence
accendere	accendere	to accede
provocare	provocare	to provoke
aggiungere	adjungir	to add
invitare	invitare	to invite
continuare	continuare	to continue
attecchire	독일어에서 유래	

(28)의 이탈리아어는 독일 남부어(theihan)에서 온 attecchire와 프랑스어 (contrôler)에서 온 controllare 외에는 대부분 라틴어(Simpson 1959; Catiglioni & Mariotti 2007)에서 온 것들인데, 이 경우는 영어와 어원상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의 의미확장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전치사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먼저 영어 전치사 on이 접촉을 원형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on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원형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on과 su의 원형의미 접촉의 변이형인 접촉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 가시성 변이에 관해 다루면서, 이 변이형들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형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음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전치사 on과 su가 가시성 변이를 제외하고는 원형의미에서 거의 1:1로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on과 su의 은유적 확장을 비교분석하면서, 두 전치사가 시간을 추상화하는데 있어서, 또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와 같은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거나, 첨가와 기준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다는 점을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에는 상이한 점도 있었는데, 영어 전치사 on이 쓰이는 자리에 전치사 su가 아니라 in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이점이 두 언어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영어 화자 역시도 방언에 따라 on 자리에 in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은유적 의미확장에 있어서 영어에 비해 빈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이유를 Talmy(2000: 222)의 동사 틀부여 언어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이탈리아어는 동사 틀부여 언어이기 때문에 위성어 틀부여 언어인 영어에 비해 전치사 활용이 적고,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두 전치사 on과 su가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큰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원형의미와 변이형, 시간의 추상화, 은유적 의미확장 등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영어 전치사에 비해 이탈리아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 역시 이탈리아어가 동사 틀부여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결국 두 전치사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점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두 언어가 은유적 의미확장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틀부여에서도 상이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두 언어가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상이점을 지닌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 참고문헌

- 김일근. 2001. “영어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분석”, 『담화와 인지』 8, 43-67.  
 이기동. 1980. “On의 의미”, 『어학연구』 17, 199-214.  
 이기동. 2002. 『영어전치사 연구』, 교문사.  
 이창희. 2001. “전치사 on의 의미확대현상 분석”, 『언어과학연구』 20, 275-296.  
 정희자. 2007. “전치사 의미의 확장”, 『새한영어영문학』 49, 239-261.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92. 『이한사전』,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Algeo, J. 2006. *British or American Englis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itel, D., R. Gibbs & P. Sanders. 1997. "The Embodied, Image-Schematic Approach to the Polysemy of the Spatial Preposition 'on'",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gnitive Linguistics Conference, Amsterdam, 15. July.
- Bowerman, M. 1996a. "The Origins of Children's Spatial Semantic Categories: Cognitive versus Linguistic Determinants", In Gumperz, J. & S. Levinson (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145-1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rman, M. 1996b. "Learning How to Structure Space for Language: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 Bloom, P. & M. Peterson, L. Nadel & M. Garrett (eds), *Language and Space*, 385-436, Cambridge, MA: MIT Press.
- Brugman, C. & G. Lakoff. 1988. "Cognitive Topology and Lexical Networks". In Small, S., G. Cottrell & M. Tanenhaus (eds),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Perspectives from Psycholinguistics, Neuropsych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atiglioni, L. & S. Mariotti. 2007. *Il vocabolario della lingua latina*, Torino: Loescher editore.
- Cooper, G. 1968. *A Semantic Analysis of English Locative Prepositions*, Bolt Beranek and Newman Inc. Report no. 1587.
- Evans, V. & M.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renda, A. 2005a. *Metaphor and Space: A Cognitive-based Analysis of Irish and Italian Prepositions*, A dissertation submitted for the M.Phil. in Linguistics. Dublin: Trinity College.
- Frenda, A. 2005b. "Cross-linguistic Comparisons: A Case Study Involving Irish and Italian Prepositions", *ITB Journal* 12, 23-29.
- Goddard, C. 2002. "On and on: Verbal Explications for a Polysemic Network", In *Cognitive Linguistics* 13-3, 277-294.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Johnson, M. 1991. "Knowing through the Body", *Philosophical Psychology* 4, 3-20.
- Kövecses, Z. 2005. *Metaphor in Culture: University and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Press.
- Lakoff, G. 1990. "The Invariance Hypothesis: Is Abstract Reason Based on Image- Schemas?", *Cognitive Linguistics* 1, 39-74.
- Lakoff, G. & M. Johnson. 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Langacker, R.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eech, G. 1969. *Towards a Semantic Description of English*, London: Longman.
- Patota, G. (ed.). 2008. *Il grande dizionario garzanti della lingua italiana*, Varese: Garzanti linguistica.
- Ragazzini, G. & A. Biagi. 1997. *il Ragazzini / Biagi concise. terza edizione. dizionario inglese italiano di Giuseppe Ragazzini e Adele Biagi*, Bologna: Zanichelli.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Rosch, E. &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NY: Lawrence Erlbaum. 27-48.
- Simpson, D. P. 1959. *Cassell's New Latin-English English-Latin Dictionary*, London: Cassell.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ume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 - London: MIT Press.
- Taylor, J. 1988. "Contrasting Prepositional Categories: English and Italian", In Rudzka- Ostyn, B.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299-326.

- Trifone, P. & M. Palermo. 2000. *Grammatica Italiana di Base*, Bologna: Zanichelli.
- Tyler. A. & V. Evans.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Ungerer, F. & H.-J. Schmid. 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02 Edition. (임지룡·김동환 역. 2010. 「인지언어학 개론: 개정판」. 태학사).
- Wierzbicka, A. 1993. "Why do We Say IN April, ON Thursday, AT 10 O'clock? In Search of an Explanation?", *Studies in Language* 17-2, 437-454.
- Zingarelli, N. 2001. *lo Zingarelli minore: 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di Nicola Zingarelli edizione Terzo millennio*, Bologna: Zanichelli.

엄철호(제1저자)

609-736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8-12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전화번호: 051-519-0418

전자우편: ych4008@hotmail.com

권연진(교신저자)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정보학과

전화번호: 051-510-2026

전자우편: yeonjin@pusan.ac.kr

투고논문접수일	2012년 5월 8일
논문심사일	2012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